

한국 야구, 슈퍼라운드 일본 제압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5-1 이겨... 오늘 중국과 경기
3회초 김하성·박병호 이어
4회 황재균 홈런 승기 잡아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행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라라 봉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본과의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5-1로 승리했다. 예선 첫 경기에서 대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홍콩을 연파한 후 슈퍼라운드에서 A조 1위 일본을 물리쳤다. 한국은 31일 열리는 중국전에서 승리하면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한다. 한국은 프로가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15점 전승을 기록했다. 경기 초반 홈런포가 쏟아져 나오면서 손쉬운 승리를 가져왔다. 한국은 3회초 김하성과 박병호의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4회 황재균의

솔로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다. 황재균은 최근 3경기에서 홈런 4개를 몰아치는 장타력을 뽐냈다. 한국의 두 번째 투수 이용찬은 3회부터 등판해 3%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 최원태는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후 팔꿈치 통증으로 교체됐다. 한국은 1, 2회초 공격에서 고전했다. 한국 타자들은 일본 선발 사타케 가츠토시의 시속 140km대 직구와 포크볼에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홈런으로 승부의 흐름을 가져왔다. 김하성은 3회 1사 후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려 한국에 리드를 안겼다. 2사 후에는 4번타자 박병호의 솔로포가 터졌다. 한국은 4회 황재균의 솔로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고, 5회 선두타자 박병호와 안치홍의 연속 안타에 이어 양의지의 1타점 2루타 등으로 2점을 보냈다. 한국은 이후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이날 안타를 14개나 쳤지만, 잔루가 13개나 됐다. 결정력 부재는 조금 아쉬웠다. 6회말 1점을 내준 한국은 8회 1사 1, 3루 위기에 처했지만 함덕주가 후속 타선을 막아내 일본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뉴시스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기. 한국 2회초 2사 1,2루 황재균이 내야 플라이를 치고 있다.

태권도의 날 새로운 도약

내달 4일 태권도원서 기념행사

'2018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9월 4일 '세계 태권도성지,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2018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는 지난 3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기념해 '2018,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하여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태권도협회·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태권도진흥재단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는 9월 4일 오전 11시,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국기원 9단 최고 고단자회와 미동초등학교의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기태권도 지정 기념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정부, 국회, 태권도 기관·단체, 지자체의 주요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태권도의 날'은 지난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이 2006년 정기총회에서 9월4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법정 기념인인 '태권도의 날'(9월 4일)과 대한민국 대표축재인 '무주반딧불축제'(9월 1일~9일)를 맞아 태권도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청 태권도팀, 한국 실업 최강전 금메달

김제시청 태권도팀(단장 구명석)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8 한국실업최강전에 출전하여 금1, 은1, 동3개를 획득하여 김제시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철원군, 철원군의회, 철원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실업연맹에 등록된 선수들이 출전하여 체급별로 자웅을 겨뤘다. 김제시청은 2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 -46kg급의 조미희 선수가 동래구청의 김푸름 선수에게 3:1로 승리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나 -73kg급 박예슬 선수는 정주시청의 전소희 선수에게 12:5로 패해 아쉬운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밖에 -53kg급 박영지, -62kg급 안해인, +73kg급 이수민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5인조 단체전(박예슬, 지소현, 안해인, 이수민, 조미희)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서인오 감독은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과 많은 관심으로 항상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더욱더 분발하여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초점 내달 1일 AG 축구 한일전... 향후 10년 걸었다

선수들 병역 문제 달려... 금메달 결정전 이상의 의미

패배하면 '국내 유턴'도 걱정해야
일본, 엔트리 전원 21세 이하 구성
한국이 이겨야 할 이유가 너무 많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한일전은 한국 축구의 향후 1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한판이다. 한국과 일본은 9월1일 밤 8시30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보고르 치비논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른다. 각급 국제대회에서 술한 명승부를 연출한 두 팀이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놓고 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양국의 관심이 높다.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쪽은 한국이다. 우리에게 이 경기는 금메달 결정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미 A대표팀의 핵심이거거나, 추후 그럴 자격이 있는 20명의 병역 문제가 달린 게임이기 때문이다. 단체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지만, 모든 초점은 손흥민(26·토트넘)에게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를 넘

어 세계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선 손흥민은 아직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 차례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만 26세인 그에게 이번 대회는 깔끔하게 병역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끔찍한 가정이지만 일본전에서 패한다면 전성기의 2년 이상을 버려야 한다. 언제 다시 나올 지 장담하기 어려운 슈퍼스타의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소속팀인 토트넘은 물론 의인들의 관심 또한 뜨겁다. 토트넘은 한국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전하고 있다. 미국 CNN은 베트남전 종료 직후 손흥민의 현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CNN은 "손흥민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결승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병역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했다. 손흥민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번 한일전은 축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미 어린 나이에 유럽에 진출한 황희찬(22·잘츠부르크), 이승우(20·

베로나), 김정민(19·FC리퍼링) 등은 군 문제를 위해 국내 유턴 시기를 걱정할 필요없이 맘 편히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다. 압도적인 활약을 보이는 황희찬(26·감바 오사카)와 러시아월드컵으로 이름을 알린 조현우(27·대구)는 더 큰 무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좋은 예가 4년 전 인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재성(26·울슈타인 킬)이다. 전북 현대에서 실력을 키운 이재성은 올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2부리그)에 진출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만 26세에 유럽으로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엔트리 전원을 21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했다. 2년 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실전 감각을 익혀주겠다는 계획이다. 23세 최정에 선수들과 와일드카드(24세 이상)까지 불러 모았는데 이런 팀에게 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이겨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경기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